

광주시 '깜깜 행정' 혈세 400억 날렸다

감사원 감사... 제2순환도로 협약변경 잘못 대응 10년 방치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의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협약 변경을 제 때 하지 못한 채 10년 간 방치해 수백억원의 보전금을 더 부담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민간사업자가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 자금 대신 비싼 이자를 내야하는 주주차입금으로 갈아타면서 얻은 수익을 독식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상사중재나 민사재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5일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자사업자는 법인세 절감 효과, 조기 배당효과 등 자금 재조달로 인한 이익을 전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지난 2004년 6월 개정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자

금 재조달을 하고자 할 때는 주주관청의 동의를 얻고 자금 재조달로 발생하는 이익을 민자사업자인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와 50대50으로 공유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맥쿼리는 지난 2003년 3월 주주로부터 400억원의 후순위 차입금을 이자율 15~20%로 차입하고, 2004년 10월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 1420억원(이자율 연 7.25%) 전액을 연 이자율이 10%인 주주차입금으로 변경했다.

맥쿼리는 지난 2003년 3월 주주로부터 400억원의 후순위 차입금을 이자율 15~20%로 차입하고, 2004년 10월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 1420억원(이자율 연 7.25%) 전액을 연 이자율이 10%인 주주차입금으로 변경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초 협약에 관련 조항이 없는데도 맥쿼리 측이 국내 유명 로펌을 고용해 법적 조치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조만간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9년 제2순환도로 1구간에만 153억원 등 민간자금을 투입했으며,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광주시가 공유할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인 28년간

1224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43억7000만원, 10년 간 437억원의 시민 혈세를 맥쿼리에 더 안겨준 셈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1997년 맥쿼리와 최초 협약 당시 자금 재조달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협상 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조만간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초 협약에 관련 조항이 없는데도 맥쿼리 측이 국내 유명 로펌을 고용해 법적 조치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조만간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9년 제2순환도로 1구간에만 153억원 등 민간자금을 투입했으며,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광주시가 공유할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인 28년간



“웃으면 병이 달아나요” 15일 광주 남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건강강좌 ‘만성질환 건강지킴이 교실’에 참석한 주민들이 ‘웃음 요가’ 강사인 김영식 남부대학교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피안대소하고 있다. 남구청 주최 건강강좌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리고 있다. /김진숙기자 jeans@kwangju.co.kr

공직비리 대대적 감찰... 지역 관가 긴장

정부가 다음달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벌이기로 해 지역 관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최근 전·현직 공직자들의 자축은행 사태 연루는 물론 성범죄, 횡령 수수 등의 공직 비리가 속출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감도높은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 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관 등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현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내년 총·대선을 겨냥한 정치권 눈치보기,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38개 중앙부처의 감사

관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자체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는 준법 의식이 낮고 부정한 사람이 너무 많아 사회 전반에 부패한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이제 정정당당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내년 정치일정으로 정치권 쭉시기, 눈치보기 등 공직자로서 중립적인 자세가 흐트러질 여지가 많고 올해 안에 전체 공기업 기관 중 절반이 교체될 예정이라 기강해이 가능성이 커져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관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자체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는 준법 의식이 낮고 부정한 사람이 너무 많아 사회 전반에 부패한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이제 정정당당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내년 정치일정으로 정치권 쭉시기, 눈치보기 등 공직자로서 중립적인 자세가 흐트러질 여지가 많고 올해 안에 전체 공기업 기관 중 절반이 교체될 예정이라 기강해이 가능성이 커져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해법 없는 'F1 갈등' 지역분열 양상

찬성 회견·반대 농성... 서부권·동부권도 '온도차' 추경 상임위 통과... 본회의 가결 앞두고 논란 고조

F1(포틀러원) 국제자동차경주 대회가 지역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가 편성한 56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의 1라운드가 일단 종료된 듯 하지만 지역 사회의 갈등 수위는 점점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4일 밤 10시10분 경제관광문화위원회를 열고 전남도가 편성한 568억원 규모의 F1 대회를 위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돌려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가결을 앞두고 지역 사회는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다. 광주·전남 진보연대 등 20여개 단체로 이뤄진 '도민부시, 민생파탄

법도민 F1 중단대책위원회'는 17일 도의회 앞에서 F1 대회 추경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서 영암 삼호읍 반영회원 100여명은 F1 대회가 미래 후손을 위한 투자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14·15일에도 목포 음식점 협회 등의 찬성 기자회견이 열렸고 반대측에서는 천막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F1 대회 중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 전남지역인데도, 목포·영암·해남 등 서부권과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의 시각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영암읍 주민들과 목포시 등이 기자회견을 주도하며 F1 대회에 대한 찬성측 분위기를 내는 반면, 동부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지

난 7일 F1 중단대책위의 'F1 대회 추경예산 편성 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순천 전남도청 2층사 앞에서 열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도의회도 비슷하다. 추경안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과 '그래도 해야 한다'는 의원들 간 입장차가 '하늘과 땅 차이'다. 17일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F1 추경안 통과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첫 대회가 끝난 직후 벌어졌던 갈등 양상과 판박이다. 지난해 12월 '2010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한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우태(장흥·2·민노)·유현주(비례·민노) 도의원의 피켓 시위가 벌어졌고 본회의장에서 '부실' 논란이 제기된 F1 대회 추경안 통과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시위도 울려퍼졌다.

6개월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역민들에게 '지방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면

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돼야 할 F1 대회가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대화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 분열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대화 추진 방향을 결정짓고 지역이 분열되는 사태를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국가적 행사로 치러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 2011년 7월 4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예술작품으로 빛나는 이태리의 정통 명품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MUSEO 뮤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은 이탈리아 명품가구 -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품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신세계백화점 금호빌드
뮤제오 - 화정역 -
메리어트 웨딩홀 동성역 동성교차로 상록회관 -
KB 국민은행 - 동성동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 / 실내장식
MUSEO 뮤제오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점보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어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